

사회

교통카드 초·중학생엔 '만능카드'

도난·갈취·과소비 부른다

학부모들 "한도액 제한 등 대책 서둘러야"

광주 모 중학교 1년 최모(13)군은 지난달 25일 체육 수업을 받으러 운동장에 나갔다가 사이 교실 책상에 둔 마이비 교통카드를 도난당했다. 분실 당시 교통 카드에 충전돼 있던 금액은 3만여원.

최근 카드 도난 사실을 같은 반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이날 같은 반 친구 35명 중 20명이 교실에서 교통카드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교통 카드로 시내버스요금도 물론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편의점에서 물품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지 도난사고가 잦고 길거리에서 고등학교 학생 형들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최근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대중교통 결제카드인 마이비 카드 도난 등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 카드로 시내버스 요금은 물론 각종 유통 가맹점에서 음식값이나 물건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주)마이비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광주지역 어린이(만 7세~12세)는 12만5300명이며, 청소년(만 13세~18세)은 14만3191명 등으로, 이 중 70~80% 가량이 교통카드인 마이비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카드는 선불형 교통 요금카드도 각종 유통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날 현재 현금처럼 카드 사용이 가능한 광주지역 유통가맹점은 미니ストップ 142곳·웨이마트 140

곳·세븐일레븐 175곳·GS 25 71곳 등 모두 528곳.

(주)마이비 측은 앞으로 롯데리아·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점도 가맹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같이 쓰임새가 다양해지면서 초·중학생들 사이에 교통카드 분실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카드를 잃어버리는 사례가 빈발함과 동시에 일부 학생들에게 '도박'(盜竊)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또 이 카드를 이용해 장난감과 먹을거리를 충동구매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사는 박모(여·37)씨는 지난달 23일 시내버스로 통학하는 딸(10·초교 3년)에게 2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주었다.

다음날 오후 딸이 "충전된 돈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자, 박씨는 같은 날

1만원을 재충전해주었다. 이같은 일이 나흘간 계속되자 박씨는 사용처를 캐물었고, 딸이 학교 앞 편의점에서 먹을거리를 사는데 교통카드를 마구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자 학부모와 교사 등은 초·중학생들의 현금 결제를 막거나 한도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임진희(여·43) 사무국장은 "충전된 액수만큼 물품 구매가 가능한 교통카드가 어린 학생들의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나쁜 소비습관을 조장하는 만큼 사용 한도액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고추장·된장 만들기 강좌

5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전통식품 만들기 강좌'에 참여한 주부들이 전통식품인 고추장·된장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매주 화요일 한 차례 열리는 이번 강좌는 다음달 16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술집서 만난 여성 2명 성폭행·성추행

서부경찰, 3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5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및 성폭행한 김모(34)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에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술에 취한 광주 모 대학교 1년 A(여·20)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새벽 2시30분께 A씨의 친구 B(여·20)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동구 황금동 한 모텔 3층 객실로 데려가 한 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를 먼저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완강히 거부하자 차에서 내리게 해 줌으로써 가혹한 후폭풍을 면했다. 김씨는 술집 앞에서 만난 A씨의 친구인 B씨에게 다가 "집에 배라다 주겠다"고 속여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기자 kimho@

초등 女조카 상습 성폭행 20년 전자발찌

광주지법 중형 선고

초등학교 30대에 대해 실형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5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등) 등으로 기소된 정모(31)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

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나이 어린 조카를 수차례 강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 또한 커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25일께 강진군 강진읍 누나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카 A(당시 10세)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2년 여에 걸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부부 보험 사기극의 말로

실종신고 '사망' 판결 ... 여관 등 전전 6년 인고의 시간

12억 수령 눈 앞에 두고 '덜미' ... 돈방석 아닌 철창행

지난 2004년 중국과 인천, 목포 등을 오가며 도자기 판매업을 하던 김모(55)씨. 김씨는 자금난에 처하자 아내 박모(49)씨와 함께 '보험 사기극'을 꾸렸다. 실종신고 후 5년간 행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당시 김씨가 가입한 5개 보험상품의 총 수령 가능액은 12억 7000만원. 김씨는 보험 가입 6개월 후인 2004년 11월께 조선족 브로커(47)를 통해 중국 공안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했다.

김씨의 아내 박씨는 같은해 12월 중국 공안의 실종 공문을 통보 받고, 실종 5년5개월 여만인 지난 7월 29일에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부터 남편 김씨의 사망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실종신고 후 어선을 타고 국내로 밀입국 한 뒤 5년여 동안 부산 등지에서 여관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혼자 생활했다. 또 보험사의 조사에 대비해 아내와 통화할 때는 반드시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에는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 나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기도 했다. 범행이 들통날까봐 실제 취업하지 못하는 바람에 김씨의 생활은 날로 궁핍해졌다. 아내 박씨 역시 남편과 떨어져 있는 동안 식당 등에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수년에 걸친 이들의 노력은 보험금 수령을 눈앞에 두고 '물거품'이 됐다. 보험 가입 6개월 만에 실종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밟힌 것이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에 부산시 동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중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와 함께 꾸민 '사기 행각'이 6년2개월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전남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5일 김씨에 대해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아내 박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135) 김종두



편의점 종업원이

2천만원 빼들려

광주서부경찰은 5일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이모(30)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초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모(45)씨의 편의점에 취업한 뒤 같은날 밤 11시께 금고에 있던 현금 1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편의점에 취업한 뒤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통상적으로 편의점 종업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근로대기소서 만난 동료 돈 훔쳐

○광주동부경찰은 5일 근로자 대기소에서 만난 동료의 돈을 훔친 박모(33·광주시 남구 백운동)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동구 금동 S모텔 객실에서 동료 하모(41)씨가 벗어놓은 양말 안에 있던 현금 5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같이 술을 마시던 하씨가 술값 지불을 위해 양말 안에 있던 돈을 꺼내는 것을 본 박씨는 모멸에 함께 투숙한 뒤 하씨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사이 돈을 훔쳐간 것으로 판명.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억대 사기 前 전남도의회장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

광주지검 목포지청 (지청장 김진수)은 5일 해수담수화 사업과정에서 공사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전 전남도의회 의장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수담수화 시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수지역 2곳의 해수담수화 공사과정에서 수질 조사 결과서, 납품검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2억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회사 공금 6억25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전남도의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사 채용을 대가로 4000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여수 해수담수화 사업은 총 사업비 4억원이 투입됐으며, 여수시 남면 봉동리와 화정면 상화도 등 2곳에서 추진돼 지난해 완료됐다.

목포지청은 지난 8월 말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수담수화사업 회계장부 등 해당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치밀한 10대 절도범들

목포·신안서 26차례 금품 훔치고 CCTV 기록 없애

목포경찰, 7명 검거

목포경찰은 5일 고향의 슈퍼마켓과 주택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 정모(16)군 등 7명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 8월 초께 신안군 압해면 김모(82)씨의 슈퍼마켓에서 현금 17만원이 든 금고를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26회에 걸쳐 목포와 신안군 일대 상가와 주택가에서 8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3명씩 조를 나눈 뒤 주인이 잠서 자리를 비우거나 빈 주택에 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김씨의 집을 세 번씩이나 터는가 하면, 슈퍼마켓에 설치된 범행장면이 담긴 CC-TV 파일(컴퓨터)을 훔쳐 내다버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0월4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34-0234
김영면입학원 227-8088